

## 상생(相生)을 낳는 언론중재위원회

임 경 속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옛날에는 싸움을 하여도 구경할 만했다. 침을 튀기며 말다툼을 하다가 먹살을 잡고 씨름하듯 엇치락뒤치락하노라면 어느 샌가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떼어 말리는 사람이 있어 싸움판의 열이 좀 식어지면 겹연쩍은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막걸리 한잔으로 화해를 한다. 싸움이 오히려 정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싸웠다 하면 칼부림이고 총질이다.

‘상생정치’란 말에 온 국민이 귀가 솔깃하여 가슴 설레었던 때가 있었다. 기대에 어긋나긴 했지만 그 덕에 우리사회엔 상생이란 말이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어디 정착할 곳이 없나’ 이곳 저곳으로 찾아 다니고 있다. ‘노사 간의 상생’, ‘언론과 언론 간의 상생’, ‘사제 간의 상생’ 등등.

언론중재위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묵묵히 이 몫을 담당하고 있어왔다. 상생을 만드는 언론중재위원회!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있다. 연초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생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피해구제규정을 기반으로 일해 왔으나 이제 단일법에 의해 보다 확충된 기반에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해결하거나 훨씬 다양해진 중재방법으로 그동안 못다 한 ‘상생’을 만드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실 공히 ‘상생을 낳는 산실’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소중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여 발전시키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언론피해자나 언론 쌍방이 함께 공생하며 함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혜롭게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이다. 쌍방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공생하게 하는 역할이다. 실제로 당사자 법정으로 달려갈듯 격한 감정으로 중재부에 찾아 온 이들이 중재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

적이며 수준 높은 설득에 합의를 이루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정에 가기 전에 언론분쟁의 사전중재를 통해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도 유용하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 산하에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를 설치,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뢰할 만한 '상생의 산실'이다.

혹자는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오해이다. 또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외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다 밝고 명랑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분쟁의 사전예방과 치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예리한 판단력과 지혜로 공명정대한 심리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법조인도 있고 언론계나 학계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분들도 있으며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서서 인간의 소중한 인권과 행복을 추구하려 애쓰는 시민사회인사도 있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항상 발전적이다.

설사 중재부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을 경우가 혹 있을지라도 짧지 않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양측 모두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삶에 유익한 영향을 얻게 된다. 언론중재위원들의 탁월한 능력과 열성은 상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말이 있지만 현대는 무섭도록 무관심의 시대다. 성서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살벌하기 짝이 없는 이 세대에 어디에서 진정한 상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언론중재위원회야말로 그 쾌적한 산실이 되어야 한다.

얼마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언론을 아끼고 언론피해자를 사랑하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와 열성으로 중재에 임하느냐의 척도에 따라 상생의 폭도 달라질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올바른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는 훌륭한 인재들이어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상생의 산실'이 아니겠는가?

듣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으면 언론이 무슨 소용이며 언론이 없으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누가 귀가되고 눈이 되어줄 것이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긴다면 상생은 저절로 되어질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상생을 낳는 훌륭한 산실이 될 것이다. □